宇宙で一番強い 神が「私」- ②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이 '나'

勝利者の救世主の言葉をテーマ別にまとめてご紹介します。私たちがどのようにすれば永生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ます。승리자 구세주의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影の自由律法
그림자 자유율법

1. 六千年も自由自在に動いていた「私」という考えが完全に神さまに縛られたのである.

2. このように考えても自由律法に觸れ,あのように考えても自由律法に觸れ, ひたすら神さまだけを高度に思慕する自由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

常に神様が導いてくださることによって動くようになったら一擧手一投足を出して勝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3.. だから,「私という意識」が作用できないように秒秒にカチカチに縛り續けることで忙しかった.

1. 육천 년 간이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던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 묶인바 되었던 것이다.

2. 이런 생각을 해도 자유율법에 걸리고, 저런 생각을 해도 자유율법에 걸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는 자유밖에 없었던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 일거수일투족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3.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용을 못하게 일초일초 꽁꽁 묶고 또 묶기가 바빴던 것이다.

---

4. 自由律法は「私」を意識するだけが淫亂罪にあたるのではなく, 私を意識しようとする心だけ起きても「私」を意識する淫亂罪を犯した結果になるのである.

5. 人間の考えをしなくても考えようと準備するその心も「影の自由律法」に觸れた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6. その考えを勝手に抱いては絶對にいけなかったのである.

考える事があっても勝手に考える事ができない中でわなわな震えながら神さまに委ねられない考えが起こる狀態でさえ委ねられない「疑う罪」に落ちたのであった.

7. それは神さまに傾ける心が足りない故に別の考えが出ようとしたので許されず自由律法に觸れたことになった.

4. 이 자유율법은 꼭 '나'를 의식해서만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려는 마음만 일어나도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5.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도 여지없이 '그림자 자유율법' 에 걸렸던 것이다.

6.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품어서는 절대 안 되었던 것이다.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맡기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도 '맡기지 못하게 하는 의심죄'로 여지없이 쳐버렸던 것이다.

7.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부족한 까닭에 다른 생각이 나오려고 하였으므로 가차 없이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이다.

---

8. 最後に, 勝利者を立てられる時, このように高度の自由律法で整えたのである.

9. つねに, 神さまの立場に立って神さまだけを考えなければならず, 自分の立場に立つ瞬間, もう淫亂罪を犯したことである.

10. イエスや, 釋迦や, 孔子や, 孟子, トルストイ, ソクラテス等を, 人生の問題について堂に入たと言われるほど立派な聖人であると褒め讚えるが, 彼らはこの次元に上がったことが無かった. 彼らは余りにも幼稚な次元で死んでいったのである.

8. 마지막에 이긴자를 세우실 때 이와 같이 고도의 자유율법으로 다듬었던 것이다.

▲ 甘露, 露の聖霊 (감로, 이슬성령)

9. 항상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지 내 입장에 서는 순간 벌써 음란죄를 지은 것이다.

10.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 톨스토이, 소크라테스 등등 인생문제에 있어서 도가 텄다 할 정도로 훌륭했던 성인들이라고 세인들이 칭송을 하지만 그들은 이 차원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유치한 차원에서 죽어간 것이다.

反對生活も分別して行った
반대생활도 분별하여 했다

1. 反對生活をやたらにしたのではなく,「私という主體意識」が魔鬼のものであるか, ないかを分別して魔鬼の時には反對生活をした.

2. しかし,「私という主體意識」が神さまの時には反對生活をしなかった.

3. だから,「私という主體意識」が魔鬼なのか, 神さまなのか, これをうまく分別する秘訣があるのである.

1. 반대생활을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마귀의 영일 때에는 반대생활을 했다.

2. 그러나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일 때에는 반대생활을 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다.

---

4. 相變わらず, 昔のように欲張るとか, 情欲が出るとか, 憎い人が見えるとかすれば, すなわち「私という主體意識」は魔鬼によって動いていることである.

5.「私という主體意識」が完全に無くなったのか, 無くなっていないのかを判斷する基準は過去のことが全く思い出せない境地に上ってこそ「私」という魔鬼の靈が無くなったことで, まさに, その人は神さまの靈が共になさる人である.

6. その人は過去が思い出せないことだけではなく, 自分を意識する考えも出ない.

7. しかし, 愚かな者はこれが分別できないので, いつ話を聞いても分からないのである.

8. どう反對生活をするか未だに聞き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

4. 여전히 옛날처럼 욕심이 나온다든지, 정욕이 나온다든지, 미운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하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이다.

5 '나'라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과거가 생각나려야 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선 자라야 비로소 '나'라는 마귀 영이 죽은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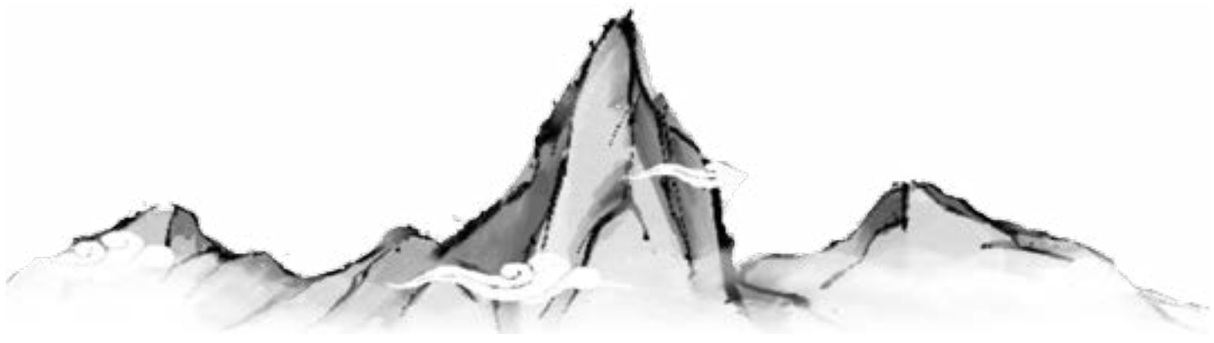
6. 그 사람은 과거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의식하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7. 그러나 멍텅구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고로 만날 말을 해 봐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어떻게 해야 반대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68회

천국잔치에 천하 만민을 다 청하나 참예자가 드물구나



格菴歌辭(五) 격암가사

人言二人十八寸(인언이인십팔촌)에
生春和氣(생춘화기)안니던가
自心天主(자심천주)므른고로
不免(불면)심판 지獄(옥)이라
白衣人心朝鮮人(백의인심조선인)들
不顧左右急(불고좌우급)히가자
世界十勝(세계십승)조선인데
조선人(인)이 왜 못가노
하나므른 조선인아 알라보자 보아
平安方(평안방)이 朝鮮(조선)인데
어서가자어서가 生命線(생명선)이 끗어질나
어서가세밧비가세 서로서로손자바라
이消息(소식)이 何消息(하소식)고
압헤가자뒤에서라 때가잇서오라는가
天國大晏(천국대안)버려전나
天下萬民(천하만민) 다請(청)하나
參預者(참예자)가 드물구나

'인언이인십팔촌(人言二人十八寸)'은 신천촌(信天村=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을)의 파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을에 봄의 온화한 기운이 돌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고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느니라.

몸과 마음이 깨끗한 백의민족 조선인들아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자. 세계 십승이 조선(朝鮮)인데 조선 사람이 왜 못가나? 하나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아! 알아보자 알아보소. 평안방(平安方=평화롭고 편안한 방위)이 조선인데 어서 가자 어서 가! 생명선이 끊어질라. 어서 가세 바삐 가세! 서로서로 손잡아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고? 앞에 가자 뒤에 서라. 때가 있어 오라는가? 하늘나라 큰 잔치가 벌어졌나? 천하 만민을 다 오라고 청하나 참예자(參預者)가 드물구나.

人心卽天(인심즉천)오라하네
勝己厭之(승기염지)네마러라
朝鮮人心(조선인심) 악(化)되면
너의 前程(전정)말아니네
원수업던 大(대)원恨(한)이
生死中(생사중)의매첫던가
올케가면 正路(정로)인데
글케가서 凶路(흉로)일세
凶路(흉로)길을가지말라
붓드는者(자)엇덧타고
是非是非是非(시비시비시비)이냐
天命婦人(천명부인)엄마말삼
不知者(부지자)야 嘲笑(조소)마라
內室(내실)계신 阿父(아부)말삼
外堂(외당)계신 唵 (엄마)말삼
內外合言通世(내외합언통세)이라
잘죽어라네이놈들
不孝莫大無道者(불효막대무도자)야
父母(부모)마음 不安(불안)하다

사람의 마음이 즉 하늘(하나님)이니라. 마귀의 마음을 버리고 참된 사람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네. 나보다 재주 좋고 잘난 사람을 싫어하지 마라. 조선(한국)사람들의 인심이 악화(惡化)되면 너희 앞길이 말 아니네. 원수 없던 사람끼리 무슨 큰 원한이 생겨나서 생사(生死) 가운데 맺혔던가?

옳게 가면 정로(正路)인데 그르게 가서 흉로(凶路)일세. 흉로 길을 가지 말라고 붙드는 자가 어떻다고 시비를 거느냐? 하늘의 명을 받은 엄마 말씀도 모르는 자들아. 비웃지나 말아라. 내실(內室)에 계신 아버지 말씀과 외당(外堂)에 계신 엄마 말씀이 내외(內外)가 합해진 하늘의 말씀으로 세상에 다 통하느니라. 잘 죽어라. 네 이놈들! 불효막대하고 사람의 도리도 모르고 막된 놈들아! 부모 마음 불안하다.

神道傳人天道國(신도전인천도국)을
男女合體(남녀합체) 음양道(도)다
三位一體天道大降(삼위일체천도대강)
萬化生朝鮮(만화생조선)이라
出陽生陰浸潛(출양생음침잠)은
道成德立(도성덕립)알것느냐
肉死神生道成人身(육사신생도성인신)
不死永生不老道(불사영생불로도)라
죽어가는險道(험도)길을 사라가기경영이라
中入十勝急(중입십승급)히가자
多會仙中(다회선중)때가온다
上帝降(상제강)臨(림) 不遠(불원)하니
全心合力修道時(전심합력수도시)
民心裏和(민심리화)되계되면
왼天下(천하)가 太平歌(태평가)라
失時末動(실시말동)부디마라
欲入兩白不得已(욕입양백부득이)라
紫霞黃霧(자하황무)둘러스니
道路咫尺不知(도로지척부지)로다
八人登天火燃中(팔인등천화연중)에
路道不通(로도불통)엇지갈가
鐵桶(철통)갓치 잠긴 十勝(십승)
無數神明防禦(무수신명방어)하니
敢不生心(감불생심)엇지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道)를 전하노라. 음욕을 가진 남자 여자가 몸을 합치는 것은 음양도 즉 마귀의 도이니라. 하늘나라는 세상 남자 여자의 품성이 없으며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느니라. 음양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음양합덕이 되어 있느니라. 음양합덕은 무극대도를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극대도를 크게 내리시어 천변만화(千變萬化)가 일어나 조선(한국)을 살리느니라. 양도(陽道)가 나와 영생의 세상이 열리고 음도(陰道)가 침잠하니(가라앉으니), 즉 죽음이 세상이 사라져 불사영생 하나님의 무극대도가 완성되고, 이 땅에 지상낙원 지상선경이 실현되는 것을 알겠느냐?

나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마귀가 죽고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됨이요 도통(道通)이니 이것이 바로 불로불사영생(不老不死永生)의 도이니라. 죽어가는 험한 길에서 영생하는 길로 바꾸어 가도록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리라.

중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십승의 도(영생의 도)를 빨리 찾아가자. 신선들이 다 모이는 중입의 때가 온다. 머지않아 상제님(하나님)이 강림(降臨)하리니 모두 전심합력(全心合力)할 때라 천하 만민이 마음속에서 충심으로 화합하게 되면 온 천하가 태평가를 부르리라.

중입의 때를 놓쳐서 마지막에 움직이는 일(말동未動)이 없도록 하여라.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면 양백 십승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양백 십승에는 보라빛 노을과 누런 안개가 둘러져 있어서 지척(咫尺) 즉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알 수 없으리라.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도로가 막혔으니 어떻게 갈까? 철통같이 잠긴 십승을 무수한 신명들이 막고 있으니 어떻게 감히 들어갈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가?*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